

2019-08-30 금 9차 지공여행 영종도 예단포

7호선 남성역에서 갑오징어와 막걸리로 배를 두둑하게 만들고

부평구청역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암역행을 타고 검암역에서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영종역에서 내려 야트막하고 조용한 산길을 혼자서 1시간을 걸어 도착한 예담포항

마침 밀물이라 바닷가로 난 바닷길이 조금씩 잠기는 모습을 보고있다.

신기하구나!

이렇게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데 조개를 줍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뉴스가 생각난다.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씩 들어오는 물이지만 금방 차오르니 낚시꾼들이 자리를 옮기느라 바쁘구나.

신기한 경험을 한다.

하긴 세상살이가 모두 평생 경험의 연속이더라

주로 실패하면서 경험하다 가끔씩 성공도 하는 것이 인생.

두려워말고 도전하며 경험을 쌓다보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는 날이 더 빨라지겠지